

유공, 환경마저 삼킨“ 공룡”

기업 이윤만 앞세워 환경규제 대상 용제시장 진출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독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거래가 규제되고 있는 MEK(Methyl Eethyl Ketone) 용제시장에 유공의 진출이 표면화되자 관련업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공은 지난 91년 Edeleanu Geselschaft의 기술을 도입해 연산 3만톤규모의 공장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덤핑에 따른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그동안 MEK의 생산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기회복과 NCC 공장들의 잇달은 사고로 MEK가격이 폭등하자 다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MEK가격은 톤당 800달러로 93년의 500달러에 비해 300달러이상 상승했다.

MEK는 질산셀로룰로스 및 각종수지, 래커용 용제, 인쇄잉크용세정제, 가항촉진제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그러나 인체허용 농도가 200ppm으로 아세톤의 700ppm이나 IPA의 400ppm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또 1만3000 1만8000ppm하에서 4 8시간 노출되면 생명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이에따라 문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MEK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UCC를 비롯한 외국의 기업들은 환경적응형용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시점에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기업이자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모태인 유공에서 제3세대 용제 개발보다는 눈앞의 이익만을 앞세워 공해유발 품목에 신규진출하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화학저널 1994/10/3>